

후발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불국토신앙이 나라와 백성들을 한데 묶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웅사가 주창한 불국토신앙은, 경주 남산은 과거 수미산이었고, 강원도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였으며, 금강산은 범기보살의 도량이었던 등의 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국토신앙은 의상 대사에 이르러 화엄 삼찰론으로 전개되면서 호국불교사상으로 승화되었다.

처처소소에 불탑이 산재하여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 전체를 하나의 사찰로 인식하면서 생태적 시각으로 돌아보았다. 남산은 금오산(471m)과 고위산(495m)에서 뻗은 산줄기와 40여 개의 계곡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이번 생태도너터링은 서남산 용장골에서 동남산 봉구골까지 남산자락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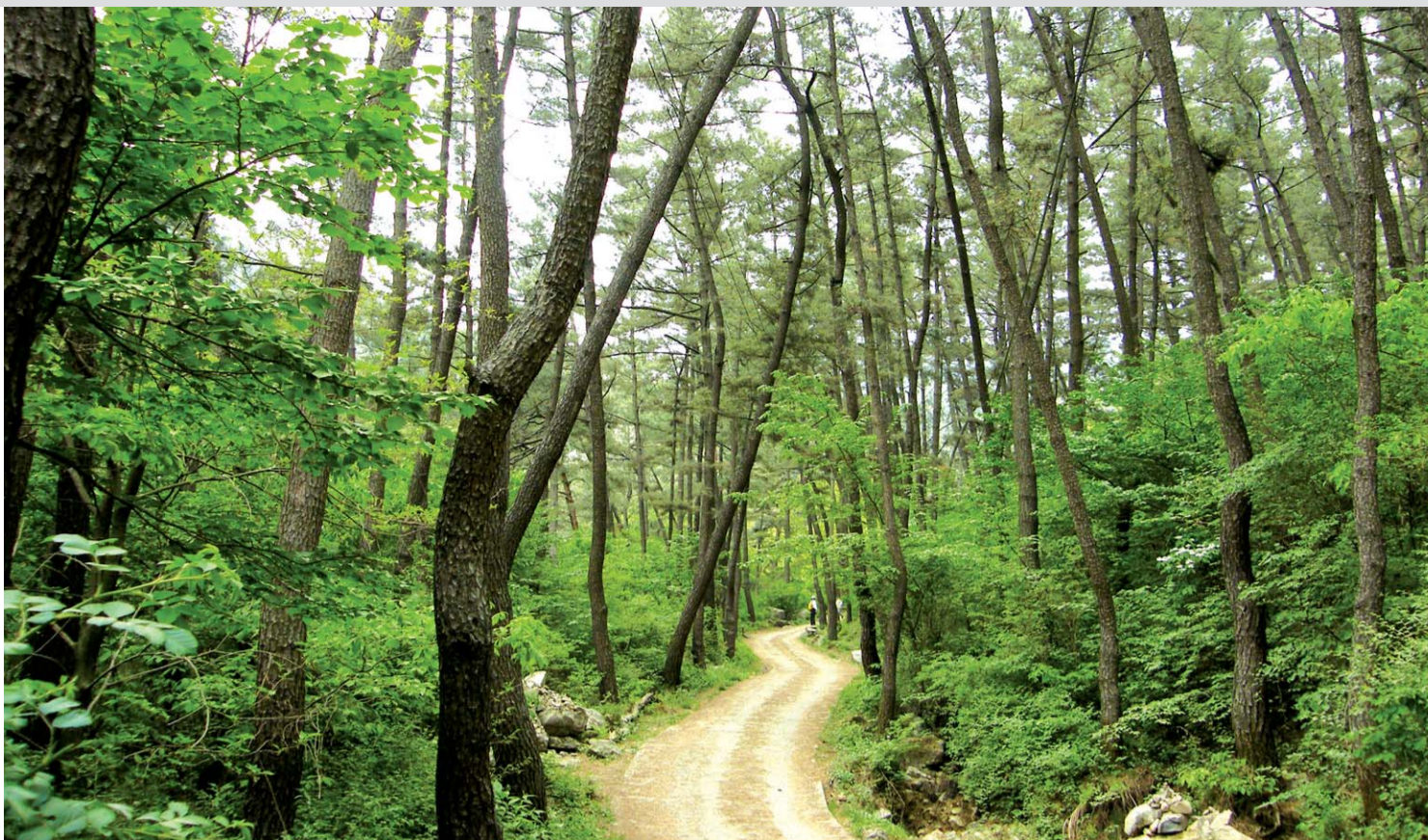
용장골은 남산에서 가장 긴 계곡으로, 중간중간에서 관음사와 천우사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이 지역은 높이 20m를 훨씬 웃도는 노송들이 풍치를 이루고 있다. 자생종인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사방울 등으로 심었던 물오리나무 등이 남산의 소나무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면 차세대 주자로 나설 준비를 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5월초, 용장골 여기저기 큰꽃오리나 이곳에 열화미소를 짓고 있다. 모니터 기간 동안 남산 전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으로는 제비꽃 종류를 비롯해 애기나리, 등골매, 현호색, 애기풍뎠, 산괴불주머니, 솔밭꽃 등이 기록되었다. 큰꽃오리는 줄기가 3m에 달하는 덩굴식물로, 잎은 새의 깃털 모양을 하고, 꽃은 가지 끝에 1송이씩 달린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사찰 조경에 알맞은 우리 야생화이다.

5월은 봄나비들이 가장 왕성하게 출현하는 계절이다. 애기세줄나방, 애물결나비, 네발나비, 빨나비 등 8종류가 관찰되었다.

한월사 마당에서 만난 길알잡이는 풀빛깔이 금록 또는 금적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비단길알잡이'라고도 한다. 개미나 작은 곤충을 주로 사냥하는 육식성 곤충이다. 신라의 세 왕이 묻힌 삼릉 주변은 아름답게 노송들로 그윽하다. 남산의 노송들은 사찰 주변보다 능(陵)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죽은 자는 숲을 지키고, 산 자는 숲을 훼손한다는 명제를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삼릉 소나무의 형질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5대 형질 가운데 하나인 안강형에 속한다. 안강형 소나무는 주로 경주와 포항지역에 나타난다. 수관은 위가 평평하고 줄기가 매우 굵은 소나무이다. 몸체는 신이 내린 듯한 몸부림과 태권무를 추는 흥겨움을 보여준다.

절도 암자도 없는 골짜기에 향내음이 솔바람에 섞여있다. 더러는 관리인도 없는 노련불 앞 저 홀로 타고 있는 촛불도 더러 눈에 띈다. 불자들과 산행객들이 발혀놓은 것이다. 이렇듯 남산은 항상 불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산불 피해를 입었다. 산불감시원도 여럿 있고, 산불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만, 누구든 오며가며 살펴볼 일이다.

삼릉을 지나면 배리삼존석불을 모시고 있는 삼불사와 망월사가 자리한다. 일락할미새 한 쌍이 잡은



솔바람 부니 봄나비 '팔랑~'

벌레를 입에 물고 망월사 경내를 들락거리는 것을 보아 어디엔가 동지를 튼 모양이다. 남산의 여름철 새로는 그 밖에 꿩꼬리, 뽕파기, 찌르레기, 병어리뽕파기, 흰배지뽕파기, 숲새 등이 관찰되었다.

부처골 감실부처담으로 가는 길에 등나무꽃이 만발하다. 남산에 등나무가 많은 것은 지질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등나무는 뿌리가 스스로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서 토양이 척박한 화강암 절단인 남산에서도 잘 견딘다.

부처골에서 탐골까지, 향산강의 지류인 남천이 흐르고 있다. 남천은 토함산의 남서사면 골짜기와 남산의 북동사면 골짜기를 발원지로 두 물이 합류해 황남에서 향산강 분류로 들어간다. 남천은 부처골과 탐골 들머리에서 남산과 가장 근접해 있다. 이 구간은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자연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자갈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하상은 거의가 모래바닥이다. 상류에서 몇 개의 저수지가 있고, 종류 아래쪽으로 몇 개의 보가 있다.

남천의 물은 비교적 맑아서 2-3급수를 보여주고 있다. 점물개와 붕어가 우점한 가운데 피라미, 버들치, 참붕어, 미꾸라지, 돌고기, 잉어, 갈겨니, 기름종개, 밀어 등이 나타난다.

아래쪽으로 가면 외래어종인 파랑볼우렁이 나타난다. 일명 '볼루길'이라고도 불리는 파랑볼우렁이는 미국산 외래종으로, 물 흐름이 느린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살면서 우리의 고유어종인 붕어, 피라미, 메기, 미꾸라지 등의 토종을 닳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남천강은 왜가리와 백로류를 비롯해 물떼새류와 도요새류 등 여름 물새들의 고향이다. 꼬마물떼새는 남천의 물새 가운데 가장 멋쟁이다. 꼬마물떼새의 아름다움은 넓고 흰 눈썹선과 매혹적인 황금빛 눈레



공조팝꽃의 꽃무지.



꼬마물떼새



파랑볼우렁.

탐방객 많아 생태훼손 심각 대형 포유류 등 점차 사라져 남산 '휴식년제' 도입 필요

뒤리에 있다.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산란을 하는데, 천적이 보금자리 가까이 다가오면 날개를 다친 듯한 의상 행동을 해서 천적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꾀돌이 새이다.

남산은 해발이 높고, 도시에 인접한 데다 산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계로 멧돼지나 삥 같은 대형 포유류는 사라지고 없다. 다만, 가끔 고라니가 산을 내려와 마을 농경지와 남천변에서 관찰된다는 주민들의 증언이다. 남산의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위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건의해본다. 남산 주변의 사찰 진입로는 고압계도 거의가 비포장길이다. 탐골 들머리에서 옥룡암까지도 비포장길이 계류를 따라 나왔다. 그러나 시속 20km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승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길을 내달린다.

신라 때 신인사(神人) 절터로 알려진 탐골의 부처바위에 불보살과 목탁, 비천상, 반얀나무 등을 조각해놓았다. 그래서 '탐골마애조상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번상도를 보는 듯하다.

목탁 조각은 고려 때 불태워진 황룡사 목탑을 본딴 것이라 한다. 바위에 조각된 나무는 인도의 반야나무와 망고나무를 많이 닮았다. 화명이 '뱅골보리수'인 반얀나무는 가지에서 공기뿌리(氣根)가 나

와서 땅에 닿으면서 다시 뿌리가 되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는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나중에는 공기뿌리가 무성해서 나무가 마치 하나의 숲처럼 변해버린다. 중국에서는 반얀나무를 '용수(榕樹)'라 하고, 이를 '독목성림(獨木成林)'이라 설명하고 있다. 탐골 옥룡사에서 도리사로 이어지는 숲길에 있다. 안강형 소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간간히 리기다소나무도 섞여 있다. 30년생 인편의 소나무 숲 사이로 키 작은 나무들이 소나무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고추나무, 물참대, 노린재나무, 산사나무, 팔배나무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고추나무는 키가 3m 가량 되는 작은 관목이다. 잎사귀가 고추잎을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산에서는 주로 산골짜기 개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봄에 하얀 꽃이 피는데, 향기가 좋아서 사찰 주변에 심어도 좋다.

보리사는 동남산에서는 가장 반듯한 고찰이다. 주석하고 계신 부처님도 경주 남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라 부처님이다. 대웅전 뒤로 관목들을 제거하여 산불을 차단하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해두었다. 보리사 주변의 대숲은 남산에서 가장 넓은 대나무 군락지이다. 남산은 출입처가 따로 없어 어디서든 산을 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다. 하지만, 그 때문에 노면진석과 노포확대가 일어나 산길 생태가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통일전, 삼릉, 포석정 등에서 전방대로 가는 구간이 가장 심하다. 그 밖에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면 탐방객들의 잦은 발걸음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 눈을 아프게 한다. 산길은 가지가 적을수록 좋고, 노퍽이 짙을수록 좋다.

사금갑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서출지는 통일전에서 매우 가깝다. 서출지의 상징인 배롱나무는 아직 때가 일러 꽃봉오리를 다물고 있고, 연못가의 창포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연꽃도 아직은 제때가 아닌 듯하다. 다만, 수생식물인 마름만이 떠 있다.

서출지는 고추잠자리, 큰밀잠자리, 잠자리 등등 남산 잠자리들의 태실이다. 서출지에서 애벌레 시절을 보냈을 가지죽벌잠자리 한 마리가 막 우화를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서출지는 수서 곤충 뿐만 아니라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에게도 도출할만한 곳이다. 서출지 무량사 앞에 공조팝나무가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조경수로 쓰이는 이 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포기나누기와 꺾꽂이로 번식시킨다. 공조팝나무에 검정꽃무지들이 앉아서 꿀을 빨고 있다. 검은색 딱지날개에 누런 얼룩무늬가 있다. 봄과 여름이 주로 나타나서 꿀과 꽃가루를 먹는다.

남산에 자라는 식물들은 대략 90여과에 450여 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는 바다가 가까워 해양성기후의 영향권에 있다. 최근 식생조사에서 나도밤나무와 함다리나무 등 난대수종이 관찰되었다.

철물암 계곡길은 외진 곳이라 발걸음이 비교적 적다. 골짜기와 산기슭에 화강암 바위들이 많다. 남산도 정상과 능선 주위 또는 경사면에 기반암인 화강암이 노출되어 독립된 암봉이나 토어 지형을 이룬다. 남산의 불탑들은 그러한 지형조건과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만나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현장을 떠난 문화유산은 가치가 떨어진다. 곧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함께 지켜질 때 얻어진다. 남산의 불처는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었다. 자연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산도 아산의 석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시대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당신의 쉬고 있는 손! 5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전문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운동처방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옥천대총장 예철 스님
현대불교 중흥(대전충남충북)지사장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DVR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용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 알려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의도시스템

성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